

시론



탁인석 문학칼럼니스트

국운과 맞물린 2025 한글날

하늘의 별들을 누가 셀 수 있는가 강변에 모래알을 헤아릴 수 있는가 영원하고 무궁을 깨달을 수 있는가 AI시대 미래를 떠올리면서 문득 위 찬송가 구절이 생각났다. 세상일이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는 탐구이긴 한데 인류 문명은 어디까지 갈 것이고 그 끝이 보이지 않기에 거기에 맞는 구절로 받아들여졌다. AI시대는 참으로 인간의 상상마저 뛰어넘고 있다. 금나와라 똑딱, 은나와라 똑딱하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는 도깨비스토리를 읽었다. 그런 세계는 없다고 생각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글 속에서 상상만 할 뿐이었다. AI시대에는 그런 도깨비방망이 요술은 유치한 수준이 되고 상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영원하고 무궁의 세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한때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변수가 무궁한 바둑에서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예술에서도 감정 있는 인간을 해볼 수 없다고도 생각했다. 지금 AI시대에 그런 생각이 얼마나 우스운지 부끄럽기까지 하다. 인간의 한계가 보이는 듯하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AI가 일상화돼 가는 뉴스가 속출하고 AI세상이 온 세상을 흰 눈으로 덮는 듯하다. AI는 기존에 학습한 엄청난 양의 플랫폼의 바탕으로 사용자 지원하

답을 내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 학습하고 인간처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2025년 옛그제 10월9일 한글날은 한글이 반포된 지 579돌이다. 인류가 사회생활이 시작된 청동기 시대 이후 한민족에게는 '사회 속 생존'의 베스트를 한글 창제로 나는 보고 있다. 대한민국 10월은 최고의 국경일이 두 개나 있다. 개천절과 한글날이 그것이다. 이 중 한글날은 민족 최고의 현재형 자산이고, 이는 지구촌 어디에도 내놓아도 자랑할 일이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듯이 한글의 고마움 또한 잊고 살지 않을까. 세종께서 고심 끝에 백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들었다지만 오늘날 이처럼 AI시대에 적합한 과학적 문자는 지구촌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다. 참, 한글날을 지나면서 기억할 분이 있다. 이 지역 출신 김항식 총리가 재직 시에 한글 창제는 기적 같은 축복임을 강조하면서 "한글날은 국경일을 넘어 국민축제로 가져"고 제안했다고 한다. 2011년 그의 총리 시절, 한글날을 국경일이자 정식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아는 사람은 아는 일이다. AI로 대변되는 확실하게 되고 있다. 인류 문명사의 주인공은 당연히 호모사피엔스 인간임을 의심해 볼 수도 없는 부동의 위치였다. 이런 문제가 생겨도 크게 생겨간다. 이른바 로봇 인간인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마음껏 다루는 세상이 예측되고 있다. AI 다음에 AGI시대에 들어서면 창의적 뇌가 있는 로봇이 인간 뇌의 몇 천, 몇 만 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휴머노이드의 노예 신세가 노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구상의 AI 대국은 지금 미국

과 중국이다. 어쩔 세계는 2대 강국 밑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은 네이비나 카카오를 내세우면서 소버린(sovrein) AI를 이 대열에 동등하게 해 보려는 정부 의지가 강하다. 소버린은 무엇인가? '자주적' '주권적'의 의미로 해석돼 특정문화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AI 모델이 외부 클라우드나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운영돼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 대통령실에 AI 수석을 두었고, 관계장관 발탁을 네이버 출신으로 했다. 그렇다면 소버린 AI의 근본 활용 문자는 자랑스러운 한글이지 않은가. 이 한글을 더 다듬고 개발하고 하여 디지털 언어로 본격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한글 연구에 박차를 가해보자는 화두는 없다. 한글이 우수하고 과학적이지 않지만 시대 추이에 따라 계속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알파벳 소리구분 새로운 문자개발, 디지털 한글 글꼴개발, 400억에 달하는 분절을 적용, 로마자 소리 표기 문자개발 이라든가 등 제2의 한글 창제 수준으로 가야 한다.

2025 한글날은 달라야 했다. 디지털 AI언어 한글날로 바뀌지는 대 전환 시점이다. 행사용 한글날 행사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국운과 맞물린 한글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국민적, 국제적 관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기 위한 일환으로 대통령이 직접 전격료와 함께 중대사를 치르는 행사여야 한다. 그럼에도 급변한 한글날은 총리만 축하하는 국경일로 끝났다. 이른바 미래 한글의 좌표 재설정해야 할 텐데 말이다. 이런 주장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社說

평균 연금액 50만원, 위태로운 광주·전남 노년의 삶

광주·전남의 노령연금 월 수령액은 평균 50만원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인 136만원의 38.7%에 불과하다. 생계를 위해 은퇴한 뒤에도 새 직장을 찾아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월별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의 경우는 55만5천548원, 전남은 49만8천302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역 수급자는 각각 14만2천459명, 26만8천767명으로 모두 41만1천226명이다. 가입자는 100만4천559명(광주41만8천633명·전남58만5천926명)으로 집계됐다. 수급자는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는 줄어든다. 연금별로는 가입자가 감소하는 추세와 다르게 30~34세, 54~59세 구간에선 증가했다. 50대 후반의 경우 고령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수령 시기가 도래하는 연금의 제도적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60세 이상 인구에서 광주는 10명 중 5명, 전남은 6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 빈곤과 불평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복지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연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관계 당국에 대한 불신만 되레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공적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더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위급수준의 급여에 머물러 최후의 안전망 역할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년퇴직 이후까지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한 생계형 취업에 매달리는 고달픈 현실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순노무직으로 급여가 낮은 데다 고용안정성도 취약한 편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등 지출 규모가 불어나면서 경제적 안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비자발적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정교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년의 삶이 두려운 이들이 많다. 극단적 선택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 보장, 노후 대비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더욱 투입과 보다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손보사 긴급출동 섬·산간지역 차별 해소 희소식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지역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하면서 전남의 도서와 산간 주민들의 생활 편의도 향상될 것이라 기대가 커졌다. 그동안 자동차를 보유한 국민은 법률에 의거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차별이 엄연하게 존재해왔다.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모든 회사에 반영됐다. 민간 기업의 자율이라는 이유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도 비난을 사왔다. 공정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치했다. 도시처럼 같은 보험료를 내 논란이 증폭됐다. 고장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큰 돈을 들여 수리해야 했다. 형평성에 어긋났다. 주민의 문제만은 아니다. 방문객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무책임의 극치'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늦게라도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됐으니, 다행이다. 농어촌의 정주 여건이 그만큼 나아질 전망이다.

이다. 일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양 무안 신안)에게 제출한 공문대로면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DB손보·KB손보·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완료로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약관 개정 등의 향후 절차가 예정대로 이행돼야 하고, 당국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취약한 접근성으로 상당한 불편, 상대적 박탈감을 감수해온 주민들이 또 다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17만대, 보험 가입 가능인원은 27만명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80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회사 이익은 연간 1천195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아울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차도선을 통해 이동한 차량은 1천102만대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하겠다.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적극 보완하면 서원전환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손보사 긴급출동의 지역적 제약이 해소됐다. 의미있는 변화라 할만하다.

기고



최강님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

다름이 빛나는 성장 '나답게 크는 아이'의 따뜻한 동행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은 2021년부터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나답게 크는 아이' 연계선 지능 아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느린학습자 아동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인지 학습능력과 정서·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다각적인 개입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아동센터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아동들의 결에서 꾸준히 함께하며 성장을 도모하는 파견전문가들의 노력이 있다.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에 참여해 느린 학습자들을 지원하는 파견전문가들은 각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아동의 인지학습, 정서, 사회성 수준에 맞는 개별 및 집단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단순한 교사가 아닌 '동행자'의 자세로 아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분들로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

지원단에서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파견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모임도 함께 하고 있다. 연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도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강의와 사례 공유 중심의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파견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수퍼비전 체계도 마련되어 있어, 아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이는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지원단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연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아동, 상담·심리, 특수교육 등 관련 학계 교수 등 아동·청소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지역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구조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의 인식 개선이다. 연계선 지능 아동은 보이지 않기에 더 쉽게 배제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지원단은 아동친화도 시광주-아동사회전 개회, 언론 보도, 소식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들의 존재와 가능성

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홍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차별 없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6년간 진행한 사업의 누적적 결과는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처음에는 낮을 가리고 말수가 적던 아이가 활동 후 친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일이 익숙해지기도 한다. 늘 주변만 맴돌고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던 친구는 파견전문가 선생님의 눈높이를 맞춘 교육에 점점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친구들과 점차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간다. 무엇이든 '못해요' 하며 부정적이었던 아동이 '해볼게요'라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된 작고 작은 변화들은, 느리지만 분명히 성장의 증거다.

지원단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자라고 있는 조금 느린 아동들과 긴 호흡을 통해 '함께 하는 성장'을 실천하는 지역 공동체의 '동행자'로서의 길을 선택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내 많은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연계선 지능 아동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자라는 성장은 누구보다 힘 있고 빛나는 것을.

독자투고



다가오는 21일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이다. 경찰의 날은 1945년 10월21일 미군 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해 미군정체로부터 경찰권을 이양받은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80년 동안 경찰은 소금과 공기처럼 국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국민과 함께 숨 쉬고 있는 존재로써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24시간 깨어 살피고, 경계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관

80주년 '경찰의 날'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

계성범죄, 그리고 긴 연휴기간에도 범죄취약지를 꼼꼼히 살피고, 교통관리를 하며,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했다. 범죄고위험군 선별 집중관리와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활동을 강화해 안전을 국민에게 드리고 있다.

80주년을 맞은 경찰은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을 위해 관계성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가오는 대규모 국제행사(APEC)의 성공을 위한 안전적 치안환경 유지, 학교 주변 약취유인 등 범죄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태세를 지속할 것이다. 축제기간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적재적소에서 대응하는 등 국민의 불신을 쇠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주셨으면 한다.

필자는 임용 후 첫 '경찰의 날'이 80주년을 맞아 감회가 새롭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경찰의 한 단계 도약과 발전, 국민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격려를 받았으면 한다.

(정민우·신안경찰서 경무과)

그래픽 뉴스

**가자지구 '이스라엘 인질' 현황**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당시 총 251명 인질로 납치

하마스가 납치해 가자지구로 억류된 생존 인질 20명 석방

사망 인질 28명(가자지구 전쟁 이전에 납치된 1명 유해 포함)의 시신 이스라엘 측에 인도 예정

타미르 비린 조시 닐로디(네팔 출신 군인) 학생(사망)

미확인 2명 (현지시간 13일 현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납치해 가자지구로 억류했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중 마지막 남은 20명이 13일(현지시간) 모두 귀환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납치된 지 737일 만이다.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이른 아침 가자지구 북부에서 7명을 먼저 석방하고 나머지 13명은 몇 시간 뒤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인근에서 풀려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거쳐 이스라엘군에 인계된 생존 인질은 모두 남성으로 이스라엘 남부 레임의 군부대에서 가족과 재회한 뒤 건강검진을 받았다. 남은 사망 인질 28명(가자지구 전쟁 이전에 납치된 1명 유해 포함)의 시신도 이스라엘 측에 인도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이스라엘은 합의에 따라 종신형을 받은 250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1천900여명을 석방했다. 이날 인질과 수감자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라 지난 10일 발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이뤄졌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